

세계시민교육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김남순** · 유나연*** · 박미재**** · 박환보*****

요약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적합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소속감과 연대의식, 정서적 친밀감을 포괄하는 공동체의식에 초점을 맞춰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공동체, 인권, 평화, 환경을 세부 주제로 정하고, 각 관련 분야 교육 전문가(총 7명)와 함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S시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한 후, 실험집단(36명)과 통제집단(27명)의 사전-사후검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세계시민교육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공동체의식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세계시민교육이 창출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여 자활

* 본 연구는 2022학년도 충남대학교 4단계 BK21 FOUR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사업단과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주저자), tgnskim@gmail.com

***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수료, toitoki@naver.com

****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qkralwo@hanmail.net

*****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교신저자), hwanbo@gmail.com

사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자활사업 참여자, 성인, 공동체의식

I. 서론

최근 유네스코 미래교육위원회는 교육이 공적으로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a public good)일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 참여와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a common good)임을 원칙으로 제시하며, 교육의 목적, 내용, 과정이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UNESCO, 2021). 평화, 인권, 빈곤, 지속가능발전 등의 글로벌 이슈는 특정 국가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국가, 지역사회 혹은 더 작은 단위의 공동체 안에서도 존재하여 세계와 서로 연결하는 의존성을 갖는다(박환보, 2016).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상호연결성을 동시에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달성과제로 결의한 의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세부목표 4.7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더욱 중요하게 촉구하고 있다(UNESCO, 2015, 2021).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

중 및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 위한 힘을 기르는 가치지향적인 교육이다(임현묵, 박환보, 2018). 이는 전지구적 맥락에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시민을 기르는 일이며, 이를 위한 사회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다(박환보, 2016). 이렇듯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은 주로 학교교육을 통한 학령기 아동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어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 기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박경희, 박환보, 2016; 정성경, 박환보, 2021).

최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는 사회개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능동적인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인 대상의 시민교육 강화 이니셔티브들을 장려하면서 성인의 학습영역을 확대하였다(UIL, 2022). 특히, 소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 집단과 개인,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지역사회에 성인학습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역량과 세계시민의식을 강화하는 교육 참여권을 약속하였다(UIL, 2022).

이에 지역자활센터, 미취업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성인 학습자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¹⁾ 자립 지원이 필요한 성인의 경우 사회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소속감과 연대의식, 정서적 친밀감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식이 더욱 요구된다(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7). 따라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참여자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과 공동

1) 뉴스N제주.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2023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실시」 <https://www.news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129>(2023.05.22.), 광명시평생학습원의 세계시민성 향상 교육<https://lll.gm.go.kr/lll/contents.do?key=1720>(2023.08.11.)

체성 함양을 돕고, 참여자 자신의 발견은 물론 강점을 통해 자기개발과 자활의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참여지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그러나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성을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지향점과 가치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부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시민들의 낮은 관심과 저조한 참여율, 세계시민교육 담당 교강사 부족, 미비한 교육과정 개발 수준 등으로 인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승희 외, 2019). 따라서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과 같은 개인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박경희, 박환보, 2016)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성인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적합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실천 역량을 세계시민성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교육의 효과를 공동체의식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이처럼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교육적 효과를 탐색하는 일은 자활사업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성인의 세계시민성 함양에 관한 논의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역에서 부터 세계까지 다양한 공동체 참여는 물론 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타인과 협업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진다(Oxfam, 2015). 또한 세계시민은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과 평화, 사회정의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한다(UNESCO, 2015). 따라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계시민성을 갖춘 시민을 기르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다. 이에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깊어지는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결성, 인권과 환경 등에서 확대되고 있는 전 지구적 문제 등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임현묵, 박환보, 2018).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 및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 위한 힘을 기르는 가치지향적인 교육이다(임현묵, 박환보, 2018). 이는 ‘세계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 ‘인권, 평화, 정의와 같은 인류 공영의 보편적 가치 추구’,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다양성의 존중’, ‘지속가능한 세상과 미래를 추구하기 위한 시민행동’ 등에 교육의 초점을 맞춘다(임현묵, 박환보, 2018).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세계시민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인지하고, 지역 사회와 소속집단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 변화를 이끈다.

이에 따라 인권, 평화, 상호의존성, 문화다양성, 지구공동체, 환경 등과 같이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최유성, 김영순, 2019)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원요한, 임은진, 2021; 이상옥, 손은령, 2022; 조상인, 배희분, 2019; 채보미, 2015; 허영선, 채정현, 2020)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전후를 비교(이상옥, 손은령, 2022; 채보미, 2015)하여 의식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기나 집단 간의 비교(조상인, 배희분, 2019)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원요한, 임은진, 2021)하여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이행 전후로 인식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

한편 대학에서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화, 기후변화, 평화, 인권 등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를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성신형, 차봉준, 2020).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가 보고되는 경우는 드물다(최지혜, 이숙향, 2022).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교육을 키워드로 진행된 교양강좌의 교육효과를 분석한 연구(정기영, 히라나카 유카리, 조희주, 2022)와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접목시킨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효과를 살펴본 연구(성신형, 차봉준, 2020)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들은 대학생의 세계시민교육 참여가 공동체성과 세계시민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숙정, 김혜영 (2021)은 체험방법에 따라 대학생의 세계시민성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고 실천적인 활동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는 마라케시 실행계획을 통해 사회개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능동적인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인 대상의 시민교육 강화 이니셔티브들을 장려하였다(UIL, 2022). 그러나 대학생을 제외한 성인 대상의 세계시민교육 효과 연구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정성경, 박환보, 2021; 최지혜, 이숙향, 2022; 한승희 외, 2019).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과 같은 개인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박경희, 박환보, 2016).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성인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취약한 집단이나 지역사회에 성인학습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능동적인 세계시민의식을 강화하는 요인이자 참여의 권리가 포함된 인권으로서의 교육을 보장(UIL, 2022; UNESCO, 2021)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국제적 수준은 물론 지역적 수준에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전 지구적 연대 의식과 인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촉진하고 있으나,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개인들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뚜렷하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등 해소해야 할 여러 도전적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UNESCO, 2019). 이에 성인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이 지향하는 보편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개개인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존중(설규주, 2001)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

천적 세계시민(Appiah, 2008; 이윤진, 김남숙, 2020에서 재인용)을 기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일은 세계시민교육을 지역과 국가의 맥락에 의미 있게 접목하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을 강화(UNESCO, 2019)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전통적으로 공동체적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 온 자활사업(엄태영, 임진섭, 2013)은 한국을 대표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 중의 하나로 2000년 10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로 역량 배양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탈빈곤 및 빈곤 예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보건복지부, 2022). 이를 위해 정부는 집중적이고 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3년 현재 전국 250개²⁾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제공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22). 이때 지원되는 자활사업들은 사회·경제·심리적 측면에서 동시에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경기도 여성정책과, 박경숙, 2001; 이은정, 2014).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자활사업은 주로 경제적 자립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2)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전국 지역자활센터 지정·운영 현황.
'[https://kdissw.or.kr/\(2023.02.14.\)](https://kdissw.or.kr/(2023.02.14.))'

(김경휘 외, 2022; 이은정, 2014; 최상미, 2016; 최상미, 홍영표, 김한성, 2017). 이는 자활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이어져 자활 과정에서 자활참여자의 사회·심리적 특성의 근로장벽이 배제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김경휘 외, 2022; 이은정, 2014; 최상미, 홍영표, 김한성, 2017).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면서 전문가들은 교류분석(아영아, 김민호, 2012; 이영호, 정원철, 아영아, 2011), 긍정심리(오정영, 최용용, 2011; 오혜성, 변상해, 2020), 자립 마인드(권복순, 이정희, 남희은, 2012), 삶의 질(박소영, 최윤정, 김주희, 2020) 등을 주제로 자활참여자들의 인식 개선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빈곤의 원인과 책임을 참여자 개인에게 집중하여 진단하는 경향을 보였다(정연정, 유지형, 2014). 반면, 인문학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김말란, 2012; 김영춘, 2021; 윤용택, 하순애, 2008; 이영환, 상종열, 2013; 정연정, 유지형, 2014)에서는 사회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안목과 대인관계 측면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히며, 빈곤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에게서 사회구조로 전환하는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비판을 시도하였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도 2022년 자활사업 안내서를 통해 센터와 참여자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과 공동체성 함양을 돕고, 참여자 자신의 발견은 물론 강점을 통해 자기개발과 자활의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참여자와 역량 강화교육을 제안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이처럼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점차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엄태영, 임진섭(2013)은 자활사업 참여자

들이 인식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 정도가 자활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공동체적 접근이 지닌 장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실천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수남(2018)은 단순한 공동체적 논리는 오히려 호혜성이라는 감정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비인격적 결속을 가치로 내세우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뛰어넘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그들의 사회권-사회적 존재로서 지닌 존엄과 고유가치를 누리면서 국가공동체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적인 권리(이성환, 2010)-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민주적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동체의식을 포함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적용 가능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자활사업 전문가 2명,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2명,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전문가 1명, 인권교육 전문가 1명, 환경교육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전문가를 섭외하였다. 그리고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자활참여자 대상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내용 적합성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분야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방문하여 실무자 면담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관련 현장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표 1>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참여 전문가 구성

전문 분야	경력	소속	참여 분야
세계시민교육	9년 이상	세계시민교육 양성사업단	프로그램 개발
세계시민교육	7년 이상	세계시민교육 양성사업단	자문 및 강의
자활사업(교육)	13년	S시 지역자활센터	프로그램 개발
자활사업(교육)	10년 이상	S시 지역자활센터	연구 자문
공동체 역량 강화교육	9년 이상	프리랜서	자문 및 강의
인권교육	3년 이상	프리랜서	자문 및 강의
환경교육	5년 이상	프리랜서	자문 및 강의

<표 2>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

일정	내용
2022. 4. ~ 2022. 6.	문헌 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
2022. 5. 30.	전문가 구성 후 온라인 회의(비대면, Zoom 활용)
2022. 6. 15. 오전	현장 방문, 실무자 워크숍
2022. 6. 15. 오후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구성 회의
2022. 6. 28.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시연(비대면, Zoom 활용) 교육 내용의 적합성 논의, 전달 방법 검토
2022. 7. 3.	주제별 프로그램 수정안 검토 및 최종안 확정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주제는 문헌고찰, 선행연구,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공동체, 인권, 평화, 환경 등을 도출하였다.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은 내용을 구성하고 비대면 시연을 통해 적합성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 및 재검토 후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전달 방식은 당위성을 강조하는 지식전달 교육을 지양하고, 직접 몸으로 느끼고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체험활동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2.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S시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 내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2022년 7월 4일과 6일 양일간 총 5시간의 교육을 수행하여 교육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센터 내 70명의 자활참여자 중 자활작업 일정에 따라 먼저 교육을 받게 된 자활참여자 41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교육 수행 전후 약 1시간가량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사후검사 응답지를 수집하였다. 통제집단의 자료는 해당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자활참여자 29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일정과 비슷한 시기에 맞춰 기관 실무자들의 협조를 받아 1차 수집하였고, 7월 11일과 13일 양일간 수행한 추가 교육의 시작 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차 응답지를 확보하였다. 분석 자료는 실험집단의 경우 41명의 응답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 된 5명의 자료를 제외한 36명의 응답지를 활용하였고, 통제집단은 29명의 응답지 중 2개를 제외한 27명의 응답지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응답자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응답자 특성

	구분	실험집단 수(%)	비교집단 수(%)
성별	남자	24 (66.7)	17 (63.0)
	여자	12 (33.3)	10 (37.0)
연령	20세 이상~30세 미만	1 (2.8)	1 (3.7)
	30세 이상~40세 미만	3 (8.3)	1 (3.7)
	40세 이상~50세 미만	6 (16.7)	4 (14.8)
	50세 이상~60세 미만	12 (33.3)	5 (18.5)
	60세 이상	14 (38.9)	16 (59.3)
학력	무학	1 (2.8)	1 (3.7)
	초등학교 졸업	4 (11.1)	5 (18.5)
	중학교 졸업	7 (19.4)	4 (14.8)
	고등학교 졸업	20 (55.6)	15 (55.6)
	대학(중퇴) 졸업 이상	4 (11.1)	2 (7.4)
세대주 여부	세대주	27 (75.0)	23 (85.2)
	비세대주	9 (25.0)	4 (14.8)
가구원 수	1인 가구	22 (61.1)	16 (59.3)
	2인 가구	7 (19.4)	6 (22.2)
	3인 이상 가구	7 (19.4)	5 (18.5)
수급상황	일반수급자	4 (11.1)	4 (14.8)
	조건부수급자	24 (66.7)	18 (66.7)
	자활특례자	2 (5.6)	1 (3.7)
	차상위계층	6 (16.7)	4 (14.8)
자활사업 참여 기간	1년 이하	13 (36.1)	8 (29.6)
	1년 초과 ~ 2년 이하	8 (22.2)	7 (25.9)
	2년 초과 ~ 3년 이하	5 (13.9)	4 (14.8)
	3년 초과 ~ 4년 이하	5 (13.9)	3 (11.1)
	4년 초과 ~ 5년 이하	2 (5.6)	3 (11.1)
	5년 이상	3 (8.3)	2 (7.4)

* 결측값은 제외함.

더불어 모든 교육을 마친 후 2명의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면담을 진행하였고 기관 종사자에게는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면담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박춘희(2019)가 사용한 공동체의식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소속감’ 3문항, ‘연대의식’ 5문항, ‘정서적 친밀감’ 4문항 등 3개 요인의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춘희(2019)는 공동체의식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소속감은 김경준, 김성수(1998)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고, 연대의식과 정서적 친밀감은 김경준, 김성수(1998)와 김광복, 남진(2005)의 공동체의식 질문지를 재구성한 고은정, 이경환, 안건혁(2006)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 별 문항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박춘희(2019)에서는 .70~.88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774~.876으로 분석에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 4>와 같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S시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여자 중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이며, 통제집단은 같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만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이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자활작업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임의 할당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구체적인 실험설계 모형은 <표 5>와 같다.

<표 4> 공동체의식 측정 문항

영역	문항	신뢰도
소속감	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774
	우리 지역사회에만 있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지역사회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대의식	내가 노력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830
	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우리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해결한다.	
	내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모르는 이웃들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정서적 친밀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	.876
	우리 지역사회에는 나와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	
	나는 지역사회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 지역사회에는 나를 염려해주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표 5> 사전-사후검사 실험설계

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₁	X	O ₂
통제집단	O ₃	-	O ₄

O: 실험변수의 측정값

X: 실험변수(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를 실험집단에 적용함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알아보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동질성 검증 및 교육 참여 전후의 평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 및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결과를 종속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6.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1)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표 6>과 같다. 주제별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체 교육은 팀별 협동학습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인지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소속감 및 연대 의식을 느끼며, 나아가 지구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 교육목표를 두었다. 다음으로 인권교육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실천 역량을 키

<표 6>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구성

주제	시간 (일정)	강의목표	주요 내용
O.T	1H (7/4)	-	실험집단 사전 조사
공동체	2H (7/4)	-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를 인지한다. - 지구 공동체는 나로부터 시작 되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 팀 결성(색종이 뽑기) - 생각 나누기(토론) - 팀 전지 활동 및 팀워크 게임(달걀을 지켜라) - 활동 후 소감 나누기
인권	1H (7/6)	-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더불어 살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다.	- 이름표 만들기 - 실천 활동(롤링페이퍼 작성) - 인권감수성 O/X 퀴즈 - 장애 인식 개선
평화	1H (7/6)	- 나와 다른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안다. -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이 평화임을 안다.	-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 (토론) - 털실 네트워크 활동 - GCED 개념, 전략정리
환경	1H (7/6)	- 우리를 둘러싼 환경 이야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	- 환경 돌아보기 - 우리를 둘러싼 환경 문제들 - 친환경 비누 만들기
마무리	1H (7/6)	-	실험집단 사후 조사

우는데 목표를 두고, 긍정의 언어와 정확한 호칭 사용법 등을 습득하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평화교육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인지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이 평화임을 아는 데 목표를 두어 토론과 다양

한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환경교육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돌아보고, 당면한 환경 문제들을 인식하며,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위한 실천 역할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었다. 대표적인 학습지도안은 [그림1]과 같다.

공동체 교육

강의목표	1. 세계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느끼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2.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강의도형	협동학습			
준비사항	· 팀 활동이 있으므로 강의실에는 7팀이 앉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필요함 · 활동용 준비물: 전지, 매직, 종이컵, A4용지, 젓가락, 테이프가 필요함			
단계 (시간)	진행과정 (진행내용)	프로그램 활동		유의점 및 학습자료
		강사활동	학습자활동	
도입 (15')	· 수업준비확인 · 전시학습상기 · 라포형성하기	▷ 전체인사, 출석확인 ▷ 강사 스스로 소개하고 학습자 분위 기를 파악한다. ▷ 교육 시작 전, 학습자와의 거리감 을 줄이기 위해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한다.	▶ 모두 함께 인사한다. ▶ 강사소개에 주의를 집중하며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을 갖는다. ▶ 강사와의 편안한 첫 만남으로 교 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기운인 다.	
전개 (60')	·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과 공동 체성의 중요성 - 전달수업(10')	▷ 객동이플기트 정한 팀을 확인하고 팀원들과 다시 인사한다. ▷ 세계시민의 시민의식에 대해 전달하고 지구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 달한다. - 세계시민이란? 정의 이해하기 -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의식양 -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 우리는? - 작은 것에서부터 연결되어있는 세계시민 - 지구촌에서 우리가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 - 공동체의 중요성 ▷ 팀 전지 활동 시작 - 팀 이름, 팀장, 팀 구호, 팀의 공통점, 우리들의 약속 ▷ 활동 정리		· 의견을 말해준 학습자에게 신용 (소정의 간식)
	· 팀전지활동 및 팀워크게임 - 활동수업(50')	▷ 각 팀 벨트 적어둔 내용을 발표한다. ▷ 팀 게임 활동의 전반적인 순서를 설명한다. - '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달걀을 받아 널 그릇을 만든다' 미션전달 - 토론을 통해 어떤 그릇을 만들지 의견을 조운한다 -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팀안에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느낀다. ▷ 각 팀 벨트 달걀을 떨어뜨리며 최종 승리 팀이 결정된다. - 팀 구조를 되치며 공동체성을 느끼고 연결됨을 느낄 수 있다. ▷ 활동을 해 각자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 - 달걀을 떨어뜨리는 사람의 소감 - 나머지 팀원들의 소감 - 공동체 속에서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시각 으로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 할도 해 나갈 수 있음을 정리한다.		· 우승팀에 게 믹스커피 한 박스

[그림 1]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학습 지도안

2)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실행

1차시, 오리엔테이션. 참여하게 될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주제별 학습 목표 및 강의 진행 방식 등 전반적인 교육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시, 공동체 교육. 먼저 색종이 뽑기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7개의 팀으로 구성하고 팀원들 간에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서로 인사를 나눴다. 다음으로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 우리는’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서로 연결된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시간 간식을 준비하여 의견을 낸 참가자가 팀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전달 수업을 마치고 팀 전지 활동 및 팀워크게임을 진행했다. 팀장을 정하고 팀명, 팀 구호, 팀원 간의 공통점과 활동 중 지킬 약속 등을 정해 전지에 기록하여 발표하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연대감 등이 형성될 수 있다. ‘달걀을 지켜라!’라는 주제의 팀워크게임은 팀별로 똑같은 조건의 재료를 활용해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대항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친밀감과 강한 유대감 등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차시, 인권교육. 함께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한 후, 인권의 개념과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인권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롤링페이퍼를 활용한 실천 활동은 정확한 호칭 사용부터 다름과 차이를 인정할 존중 언어를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 정서적 친밀감이 향상될 수 있다.

4차시, 평화교육.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면

서 같은 현상에 대해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의견 차이를 관리하는 힘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텃밭 네트워크 활동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평화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그 안에 공통점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대감을 경험하며 평화로운 상태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5차시, 환경교육. 우리를 둘러싼 환경 이야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기후변화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은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더불어 친환경 비누 만들기를 통해 지구촌 사회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 역량이 우리 속에 이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관찰 경험

공동체, 인권, 평화, 환경을 주제로 구성된 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도록 돕는다. 특히, 팀 활동을 통해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소속감과 연대감, 정서적 친밀감 등은 지구촌 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신호재, 2022) 자활 의지를 견인하게 될 것이다(이정애 외, 2017). 이러한 가능성은 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대화 하더라도 좀 바라보는 게 좀 마음이 너그러진단다가 그런 거지. (중략)

만약에 이제 우리 사업단에서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아 그런 편견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서로가 이제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자활사업에) 나오고, 또 아프고 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돌워줘가면서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전에는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싸우고 이랬던 게.” (자활사업 참여자 조OO의 면담 중)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 힘이 되죠. 그게 큰 힘이 되죠.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데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활사업 참여자 이OO의 면담 중)

또한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자활센터 종사자로서 현장에 함께 하면서 느낀 소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이 이론에 대한 충실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참여자들에게 협동심을 길러주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더욱 좋은 시간이었는데, 평상시에는 서로 서먹해 했던 참여자들이 끈 풀기, 계란 떨어뜨리기, 구호 외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한순간에 가치관이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작은 것들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조금씩 더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활센터 실무자 홍OO 서면 인터뷰 중)

“이러한 활동이 참여자들 간의 유대감 형성의 계기 마련과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활근로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더라도 사업단별로 근무를 하다 보니 서로 만날 기회가 교육 등으로 한정적인데 이번 교육을 통해 주제별 서로의 생

각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제별 1회기가 아닌 단계별로 여러 회기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면 참여자들의 인식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활센터 실무자 이OO 서면 인터뷰 중)

2. 세계시민교육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시민교육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집단 간 공동체의식 차이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정서적 친밀감이 사후검사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높았고(실험 M=3.57, 통제 M=3.11, $t = .465, p < .01$),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집단별 공동체의식 차이

구분		실험집단(n=36)		통제집단(n=27)		t
		M	SD	M	SD	
소속감	사전	3.02	.87	3.36	.76	-1.621
	사후	3.34	.88	3.17	.73	.815
연대의식	사전	3.08	.73	3.25	.76	-.921
	사후	3.61	.83	3.35	.75	1.264
정서적 친밀감	사전	3.08	.84	3.12	.86	-.203
	사후	3.57	.75	3.11	.92	.465**

** $p < .01$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공동체의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공변량 분석 결과

변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소속감	공변량	2.155	1	2.155	3.341
	주효과	0.905	1	0.905	1.402
	오차	38.702	60	0.645	
	수정된 합계	41.302	62		
연대의식	공변량	7.187	1	7.187	13.535**
	주효과	1.738	1	1.738	3.272
	오차	31.860	60	0.531	
	수정된 합계	40.069	62		
정서적 친밀감	공변량	3.370	1	3.370	5.287*
	주효과	3.413	1	3.413	5.354*
	오차	38.248	60	0.637	
	수정된 합계	44.859	62		

* $p < .05$, ** $p < .01$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한 공변량분석(ANCOVA)을 통해 사후검사 점수에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친밀감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354$, $p < .05$). 이를 토대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인 정서적 친밀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주제를 공동체, 인권, 평화, 환경으로 구성하여 개발하고, 적용한 후, 참여자들의 공동체의식 변화가 어떠한지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S시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 내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한 후, 사전-사후검사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공동체의식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체의식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친밀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있어 자활사업은 안정적인 노동의 기회 제공뿐 아니라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며,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해 나아가는 통로이다(지규옥, 2021). 따라서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을 온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이끌어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경제적 자활에 치중하거나 빈곤의 원인과 책임의 방향을 참여자 개인에게 두는 방식은 지양하고(정연정, 유지형, 2014),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적용된 세계시민교육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공동체의식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하위요인인 정서적 친밀감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본 세계시민교육이 최근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자활 신규 참여자 역량 강화교육의 목적인 긍정적 관계 형성 및 공동체성 함양에 부합하는 교육으로써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대부분 근로 동기뿐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과 같은 사회·심리적 특성의 근로장벽을 가지고 있다(김경희 외, 2022; 최상미, 홍영표, 김한성, 2017).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사회적 소외와 배제에서 벗어나 다른 구성원들과 친밀감을 쌓고 서로 신뢰하며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자활 능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본적 인식변화를 이끌고 참여자 자신은 물론 소속되어 있는 크고 작은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이 창출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고 자활사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 성인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동안의 세계시민교육은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교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특히 사회적 배려와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였다. 최근 국제사회는 미래 교육을 논의함에 있어, 교육은 공동의 사회적 행위로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책임을 강조한다(UNESCO, 2021). 공동체로서 교육은

개인과 공동체의 존엄성과 역량을 확고히 해주고, 공유된 목적을 수립하게 하며, 집단적 행동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공동의 인간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방향이 개인과 공동체의 존엄성과 역량 함양에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 공동체성 함양이라는 교육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교육 진행을 위한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S시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 한 곳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져 연구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확보되었다. 따라서 교육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교육효과를 충분히 드러냈다고도 볼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공동체, 인권, 평화, 환경이라는 4가지 주제를 담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각각 단일 회기로 교육을 실행하였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이 담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경험적으로 확인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계시민교육 참여로 나타난 교육효과는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세계시민교육의 교육적 가치가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포함한 성인들에게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보다 다양한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양한 배경과 특성이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행되어, 교육효과를 다각적

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후속 연구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경기도 여성정책과, 박경숙(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 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경기도 여성정책과.
- 권복순, 이정희, 남희은(2012). 자활참여자의 자립마인드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9(2).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87-205.
- 김경휘, 조성희, 최상미, 한은영(2022). 자활사업 과정적 성과지표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4(2).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89-118.
- 김말란(2012). 인문학교육이 자활사업 참여자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 김영춘(2021).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지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G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11). 한국콘텐츠학회. 553-564.
- 박경희, 박환보(2016).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8(4). 글로벌교육연구학회. 3-31.
- 박소영, 최윤정, 김주희(2020).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남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_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13(1).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69-96.
- 박춘희(2019). 사회정의 관심과 실천 모형 검증: 공동체의식과 장애 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박환보(2016). 왜 세계시민교육을 해야 하는가?. 에듀인뉴스 오피니언칼럼. 2016. 11. 15. 일자.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6>
-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자활사업안내(I)**. 세종: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설규주(2001). 탈국가적 시민성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 세계시민성과 지역시민성의 조화로운 함양을 위한 후천적 보편주의 시민교육. **시민교육연구** 32(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31-178.
- 성신형, 차봉준(2020). 대학생 인성함양과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사례연구 - S대학교 인생캠프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1(6). 한국 리터러시 학회. 285-309.
- 신호재(2022). 자존감 형성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도덕윤리과교육** 75.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131-159.
- 아영아, 김민호(20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TA의 인생태도를 중심으로 -. **교류분석상담연구** 2(1).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41-58.
- 엄태영, 임진섭(2013). 자활사업 참여자의 조직현신이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스트레스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0(2). 한국사회정책학회. 9-34.
- 오정영, 최용용(2011). 자활사업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상담학연구** 12(6). 한국상담학회. 2047-2064.
- 오혜성, 변상해(2020). 자활사업참여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녕을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1). 한국콘텐츠학회. 615-623.
- 원요한, 임은진(2021). ‘비판적 경계 읽기’수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방안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10(1). 한국지리학회. 51-65.
- 윤용택, 하순애(2008). 소외계층을 위한 대중 철학교육의 의미_제주희망대학 인문학 과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철학윤리교육연구** 24(40). 한국철학교육학회. 101-117.
- 이상욱, 손은령(2022).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유아교육연구** 42(5). 한국유아교육학회. 271-296.
- 이성환(2010). 사회권의 법적 성격. **법학논총** 22(20).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33-166.
- 이숙정, 김혜영(2021). 체험방법에 따른 대학생의 세계시민성 차이 분석. 2021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73-279.

- 이영호, 정원철, 아영아(2011). 교류분석 활용 집단활동이 자활프로그램 참여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8.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31-59.
- 이영환, 상종열(2013). 자활참여자의 인문교육 수용과정 연구 -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이수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연구** 4(1). 한국사회서비스학회. 97-143.
- 이운진, 김남숙(2020). 세계시민의식 관점에서 본 지역공동체 시민활동가 경험의 의미. **교육문화연구** 26(3).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587-610.
- 이은정(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영향요인 연구_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한국디지털정책학회. 539-548.
-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2017). 가정외보호 퇴소아동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가 자립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1(1).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81-208.
- 임현복, 박환보(2018).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4: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교육**.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정기영, 히라나카 유카리, 조희주(2022). 아시아공동체론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한 대학생들의 의식변화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2.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143-165.
- 정성경, 박환보(2021). 세대별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관련 요인 분석: 사회자본과 위협인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4). 한국교육사회학회. 175-203.
- 정수남(2018). 빈민 '공동체'와 연대의 탈감정성: '자활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Oughtopia(오투피아)** 33(3).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73-110.
- 정연정, 유지형(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연구. **사회복지연구** 45(1).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55-286.
- 조상인, 배희분(2019).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5(5). 인하대학

교 교육연구소. 875-896.

- 지규옥(2021). 자활사업 참여자가 인식하는 자활노동의 의미. **인문사회** 21. 12(4). 인문사회 21. 541-556.
- 채보미(2015). 초등 사회과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교육연구** 7(3). 글로벌교육연구학회. 111-132.
- 최상미(2016). 경제적 자활에서 정서적 자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서적 자활 성과지표 도입: 한국형 고용 희망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을 통한 한국에의 정서적 자활 성과 평가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10). 173-178.
- 최상미, 홍영표, 김한성(2017). 한국형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시행과 효과성 평가 - 경기지역 지역자활센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79-199.
- 최유성, 김영순(2019).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중학교 사회과 수업 프로그램 개발: 자율적 협동학습(Co-op Co-op) 모형을 적용하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95-321.
- 최지혜, 이숙향(2022).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40(1).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47-173.
- 한승희, 고영상, 이재준, 이은정(2019).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 연구**.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허영선, 채정현(2020). 중학교 가정교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403-1433.
- Oxfam(2015). *Global Citizenship in the Classroom: A Guide for Teachers*. *Oxfam Education and Youth 2015*. London: Oxfam.
- UIL(2022). *CONFINTEA VII Marrakech Framework for Action: Harnessing the transformational power of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Hamburg: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 UNESCO(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aris: UNESCO.
- UNESCO(2019).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rise of nationalist perspective:*
- 112 국제이해교육연구 18(2)

Reflections and possible ways forward.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aris: UNESCO.

UNESCO(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aris: UNESCO.

<자료>

뉴스N제주.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2023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실시」
2023. 03. 29. 일자.

<https://www.news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129> (2023. 05. 22.
인출)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전국 지역자활센터 지정·운영 현황.

<https://kdissw.or.kr> (2023. 02. 14. 인출)

lll.gm.go.kr(광명시평생학습원). 세계시민성 향상 교육.

<https://lll.gm.go.kr/lll/contents.do?key=1720> (2023. 08. 11. 인출)

Abstract

**The Effect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n
Community Sense for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s**

Kim, Namsoon

(Ph. D. student, Dep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Yoo, Nayeon

(Ph. D. candidate, Depr.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k, Mijae

(Ph. D. student, Dep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k, Hwanbo

(Professor, Dep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implemen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s suitable for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and explore their educational effects focusing on a sense of community that encompasses a sense of belonging, solidarity, and emotional intimacy. To this end, community, human rights, peace, and the environment were set as detailed topic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prior research analysis, and 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with education experts (a total of 7 people) in each related field. After conduct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 at the local

self-sufficiency center located in S City, a covariate analysis (ANCOVA) was conducted using pre- and post-test data from the experimental group (36 people) and the control group (27 peop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the sense of community of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 Based on this, it was suggested tha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actively used to realize the social values pursued by self-sufficiency program, paying attention to the educational values tha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n create.

Key words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Adults, Sense of Community

투고신청일: 2023. 06. 30

심사수정일: 2023. 08. 04

게재확정일: 2023. 08. 13.